

PACKAGING NEWS



협회 · 회원사

- (사)한국포장협회 제16대 김창순 회장 선임
- (사)한국포장협회 연포장분과위원회
- (사)한국포장협회 잉크분과위원회

업계

- 산업부-대한상의 산업 현장 투자애로 수시 발굴
- 환경부 택배 포장 규제서 아이스팩 제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e-라벨 표시 품목 확대
- (사)한국패키징단체총연합회 제7차 정기총회 개최
-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연합회 채정묵 제8대 회장 선출
- (사)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 2024년 정기총회 개최
- 독일 뒤셀도르프drupa 2024 오는5월말 개최
- 스타벅스 종이백 유상화
- 깨끗한 나라 제지연합회 주최 '제39회 우수제지인상' 수상



(사)한국포장협회

제16대 김창순 회장 선임

사업계획, 예산안 승인

(사)한국포장협회(회장 김창순)가 지난달 23일 더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제 34차 총회를 열고 제16대 회장으로 김창순 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감사로는 김희용 삼광인크제조(주) 회장, 정희국 태방파텍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이날 총회에는 한용교, 김선창 전임회장을 비롯하여 자문위원, 단체장, 회원 70여명이 참석하여 2023년 사업실적보고 및 수지결산, 2024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임경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6년간 과오없이 협회를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것은 회원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그동안 추진해온 다양한 사업들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차기 집행부에서 굳건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창순 신임 회장은 “협회도 시대적 흐름에 발 맞추어 변화를 통한 활성화를 꾀하고, 관련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포장산업의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사)한국포장협회는 제34차 정기총회를 지난달 23일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개최했다



총회 후 이어진 시상식에서 한국포장협회장 상에 박기출 삼영잉크페인트제조(주) 회장이 수여했다. 제27회 한용교 포장인상에서는 연구개발부문 김시범 (주)서일 연구소장, 수출진흥부문 문안용 에이치에스엠(주) 대표이사, 장학생부문 송지나 연세대학교 패키징학과 4학년, 박성태 대구대학교 식품공학과 3학년이 수상했다.

포장산업 발전에 공로가 많은 분께 수상하는 공로상에는 협회를 잘 이끌어온 임경호 회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회원사간 교류 뿐만 아니라 각 단체, 협회 발전에 노력해온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진행돼 격려와 협력을 다지는 자리를 만들었다.

(사)한국포장협회

연포장분과위원회

오선윤 위원장 선임

(사)한국포장협회 연포장분과위원회(위원장 김창순)이 지난달 15일 회의를 갖고 오선윤 (주)삼아알미늄 상무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연포장분과위원회는 협회의 가장 크고 중추적인 분과로 지난 6년간 김창순 위원장이 이끌어 왔으나 협회 16대 회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새로운 분과위원장을 선출했다.

연포장분과위원회는 작수달 2번째 목요일에 정례 회의를 갖고 있으며, 회원사간 협력, 협업 방안,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한 동반 상생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업계동향, 회원사별 동향에 대한 설명과 원자재 가격 동향, 비회원사 및 유저 동향 등을 논의하고 다양한 상황 발생시 공동 대응 방안을 찾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협회 사업에 적극



▲ (사)한국포장협회 연포장분과위원회는 지난달 15일 회의를 열고 새로운 분과위원장을 선출했다



참여하고 회원사간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화합을 강화해 나간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연포장분과위원회는 올해도 다양한 협력방안을 통해 회원사간 유대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사)한국포장협회

잉크분과위원회

정보교환 통한 어려움 대응

(사)한국포장협회 잉크분과위원회(위원장 소형섭)가 지난달 15일 협회 회의실에서 2024년 분과회의를 진행했다.

잉크분과위원회는 2024년 경기 전망, 원자재 가격동향, 회원사간 과당경쟁 지양 등 회원사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부실 유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피해를 줄이는데 공동 노력하고 회원사간 과당경쟁을 방지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잉크분과는 또한 조찬모임, 중찬모임을 병행하며 적절한 방법을 통해 회원사가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잉크분과위원회는 3개월 단위로 모임을 정례화하여 현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 (사)한국포장협회 잉크분과위원회는 지난달 15일 협회 회의실에서 2024년 분과회의를 진행했다.



회원의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리며 끊임없는 발전과 성장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사 임직원 일동

대양인쇄기계(주)
1991년 3월 5일 32주년

(주)대원포장산업
2014년 3월 11일 9주년

(주)덕원
2004년 3월 18일 19주년

(주)동양잉크
1948년 3월 1일 75주년

보성포장산업(주)
1991년 3월 1일 32주년

삼영잉크페인트제조(주)
1971년 3월 15일 52주년

(주)에스피씨팩
1971년 3월 1일 52주년

에이치에스엠(주)
2010년 3월 1일 13주년

제이에셀(주)
2016년 3월 1일 7주년

창립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산업부-대한상의

산업 현장 투자애로 수시 발굴

전담팀 설치도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협업해 기업 현장의 투자 애로 해소 지원에 나서고 있다. 산업부는 작년 4분기에 총 12건 5조4천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및 현장 애로를 발굴해 5건(2조원)을 해결하고 차질 없는 투자 진행을 지원했다고 지난달 7일 밝혔다. 투자 애로가 해소된 분야는 항공 2건, 반도체 1건, 소재 1건, 기계 1건 등이다.

산업부는 작년 초부터 현장 중심의 민간 투자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팀인 실물경제지원팀을 설치했다.



대한상의 전국 7개 지역 상의와 업종별 협회·단체 30여개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 애로를 수시로 발굴하고 해소하고 있다.

작년 한 해 산업부는 총 65건(44조1천억원)의 투자 애로를 발굴해 31건(22조9천억원)을 해결하고, 2건(3조원)은 해결 방안을 확정해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한상의는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운영하면서 지난 1년간 31건의 기업투자 애로를 발굴·건의했고, 산업부와 협업해 14건의 투자 애로 해소를 지원했다. 해결된 투자 애로를 유형별로 보면 인허가(43%), 입지(29%), 신산업 규제(14%) 순으로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차전지 생산공장 설비투자 애로, 이차전지 생산공장 입주 애로, 수소충전소 구축 및 충전 대상 확대 등이 있다. 인허가 애로의 경우 소요 기간을 단축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명료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소되는 경우가 많았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현장을 수시로 찾아가서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귀 기울이겠다는 마음으로 2024년 갑진년에도 현장 중심의 기업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택배 포장 규제서 아이스팩 제외

보랭재 ‘제품 일부’로 간주키로

환경부가 오는 4월 30일부터 시행하는 ‘일회용 택배 포장 규제’에서 식품 배송에 필수적인 아이스팩 등 보랭재를 제외하기로 했다.

규제 도입을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조차 마련되지 않아 업계 혼란이 커지자 보랭재에 대한 적용 예외 방침을 밝힌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13일 “식품 수송에 필요한 보랭재는 제품의 일부로 간주해 택배 포장공간비율 규제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회용 택배 포장 규제는 ‘과대 포장’을 막기 위해 택배 용기 안 빈 공간(포장공간비율)을 50% 이하, 포장 횟수를 1회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기준을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가로세로·높이 합이 50cm 이하인 택배는 예외다. 이 규제를 원칙대로 적용하면 보랭재는 ‘제품’이 아니라 ‘빈 공간’에 해당한다. 예컨대 택배 공간의 40%를 제품으로, 나머지를 보랭재로 채우면 위법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냉장·냉동 식품을 배송할 때 사용되는 보랭재는 포장공간비율 규제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규제에 따르기 위해 보랭재를 충분히 넣지 못하면 식품이 상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환경부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랭재는 규제에서 예외로 두기로 했다. 다만 물로만 이뤄진 아이스팩, 합성수지로 된 아이스팩 등 보랭재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 만큼 세부적인 기준을 업계와 논의해서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가 보랭재와 함께 예외로 해달라고 요구한 완충재는 제외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14일부터 식품·화장품 등 제조사, e커머스, 홈쇼핑, 택배업계 관계자 등을 차례로 만나 일회용 택배 포장 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e-라벨 표시 품목 확대

종이로 제공되는 의약품 첨부문서, QR코드 등으로 대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범 사업으로 운영 중인 ‘의약품 e-라벨 표시 및 정보 제공 서비스’ 대상을 27개 업체, 109개 품목으로 확대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2022년 식약처가 발표한 규제 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로 도입된 이 서비스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 및 허가사항 변경 때마다 종이 첨부문서를 변경하는 비효율의 감축을 위해 종이로 제공되던 의약품 첨부 문서를 용기나 포장에 표기된 QR코드 등을 통해 제공하고 모바일 기기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병·의원에서 직접 투여하는 주사제 27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올해에는 바이오 의약품 등 82개 품목을 새롭게 선정했다.

소비자 단체, 의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와 의약 전문가 단체가 제시한 의견을 고려해, 응급 상황에서 사용하는 의약품과 병·의원 외 장소에서 투여할 수 있는 의약품 등은 제외하고 대상 품목을 선정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해당 품목의 제조·수입 업체는 종이 첨부문서를 대체해 전자 방식만으로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거나, 종이 첨부문서와 함께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QR코드 등 전자 방식으로 첨부문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식약처는 “통신 장애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범 사업 대상 의약품의 안전 정보 전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사)한국패키징단체총연합회

제7차 정기총회 개최

적극적인 활동 다짐

(사)한국패키징단체총연합회(회장 송경석)이 지난달 26일 양재동 소재 음식점에서 제7차 총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전현수 회장(한국포장기술인협회의)이 감사보고를 한데 이어 2023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에 대한 심의에서 원안대로 승인했다. 또한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도 승인하였으며, 연합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계획과 회원간 협력을 강화하여 나가기로 했다.

송경석 회장은 인사말에서 “연합회가 그동안 움추려 있었으나 점차 활동적이고 다양한 교류를 진행하는 것은 각 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포장산업 발전을 위한 제안과 협력”을 요청했다.

연합회는 오는 4월 23일 한국패키징대전 개막식에 참가해 축하하고 단체장 간담회를 갖기로 하고 5월에는 운동으로 단합을 다져가기로 했다.

(사)한국패키징단체 총연합회는 또 기존 회원에서 활동을 중지한 협회와 비회원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는데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로 했다.



▲ 지난달 26일 열린 (사)한국패키징단체총연합회 제7회 정기총회 모습.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연합회

채정묵 제8대 회장 선출

회원사 공동이익과 권익 보호



▲ 채정묵 신임회장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연합회를 앞으로 4년간 이끌 제8대 회장에 채정묵(67) 명진엔터프라이즈 대표가 당선됐다.

채 신임 회장은 지난달 26일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동대문호텔에서 개최한 제63회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한국프라스틱연합회 제8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채 신임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와 대내외적인 경영환경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플라스틱 중소 제조기업을 위해 동심공제(同心共濟)의 각오로 열심히 뛰겠다고 피력하고, 선거공약인 ▲열정과 봉사와 헌신, ▲회원사의 공동이익과 권익 보호, ▲올바른 협동조합 문화조성을 기조로 연합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각

오를 밝혔다.

채정묵 회장은 1991년 창업 이후 협동조합 운동에 투신하여 전북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의 이사를 4차례 역임하고, 현재 제10대 중소기업중앙회 전북 중소기업회장과 한국프라스틱연합회 이사로 재임하고 있다.

한편, 한국프라스틱연합회는 1962년 설립된 국내 플라스틱 산업 대표 단체로 전국 8개 지방조합 및 4개 협회를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정책건의 활동 및 단체표준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인 한국프라스틱시험원을 운영하고 있다.

(사)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

2024년 정기총회 개최

‘APD Seoul 2024’ 선포식 동시 개최

(사)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회장 이숙자)는 지난 2월 2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홀에서 ‘KPDA 정기총회’와 함께 ‘제23회 패키지디자인상’ 시상식, ‘APD Seoul 2024’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KPDA 회원 및 2023년 패키지디자인상 수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사업보고 및 2024년 사업계획 발표, 패키지디자인상 시상식, 감사패 증정, ‘APD Seoul 2024’ 선포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 지난 2월 2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사)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 정기총회 모습.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는 올해 10월 17일 개막 예정인 패키지 디자인과 트렌드를 공유하고 발표하는 국제 행사인 ‘APD Seoul 2024’를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법인회원과 교류 활성화, SNS 활성화, 팩스타 참여 확장 및 브랜드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APD Seoul 2024 선포식을 통해 이숙자 회장은

“전 세계 팬데믹으로 인해 2017년 이후 7년 만에 APD 행사가 오프라인으로 서울에서 열리게 됐다”며 “다양한 영역에서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가 진행되면서 APD 역사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만큼 미래를 향한 새로운 융합의 가치를 생산하는 자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PD Seoul 2024는 오는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열리며 친환경 패키징 작품 특별전시, Asia Package Design Conference, KPDA Award 등이 예정돼 있다.

한편 이날 진행된 패키지디자인상 시상식에서 2023 한용교패키지디자인상은 (주)hy 한국야쿠르트 박문순 디자인팀장이, 2023 장운호패키지디자인상은 은성정밀인쇄 임수영 상무이사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독일 뒤셀도르프 Drupa 2024 오는 5월말 개최

인쇄산업 재도약, 지속가능한 번영 위한 솔루션

코로나 이후 8년만...전 세계 인쇄업계 기대감 고조

인쇄산업의 구원투수로 drupa 전시회가 8년만에 등판한다. drupa(드루파)는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되는 인쇄 기술 전시회로 올해 일정은 5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다. 개최주기가 4년이고 인쇄업을 선도하는 기술 및 제품이 대거 출품하기에 drupa는 인쇄 업계 올림픽으로도 불린다.

전시회 참가사 해외 비중은 80%로 최고의 국제성을 자랑한다. 올해 독일, 중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스위스, 미국, 일본, 인도 등 50개국 1,427개사가 참가한다. 현장에서 혁신기술이 시연되는 유



▲ drupa전시회가 오는 5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다.

일한 전시회이며, 메세 뒤셀도르프 전관을 사용해 순전시면적158,237 sqm 규모로 개최된다. 주요 해외 참가사로는 하이델베르크, HP, 코닥, 엡손, 캐논, 뒤폰 (DuPont), 후지필름, 헨켈, 코닉 앤 바우어, KURZ, 코모리, 코니카 미놀타, 리코(Ricoh)등이 있으며, 훔벌 주요 기업 정보는 라인메세 홈페이지 내 전시회 정보

란을 참고하면 된다. (www.rm esse.co.kr)

국내에서는 에이스기계, 딜리, 광명잉크, 서울디엔에스, 타코플러스, 코인텍, 해튼상사, 명신물산 등 25개 기업이 참가한다.

국내 기업은 프리프레스, 후가공/컨버팅/패키징, 재료, 기기/인프라/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품한다. 전시회 사이트 내 'Exhibitors & Product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 시 전체 기업/제품 확인 및 동선 계획도 가능하다.



▲ drupa전시회는 인쇄 관련 제품 및 솔루션, 서비스가 총망라된다.

올해 역시 방문객들에게 수준 높은 인사이트를 제공할 다양한 특별행사가 진행된다. 글로벌 인쇄산업 동향, 산업 혁신 관련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drupa cube', 신생기업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돋보일 'drupa next age (dna)', 스마트 패키징 솔루션을 선보이는 '패키징 터치포인트', 섬유 마이크로 공장 설치를 포함하는 '텍스타일 터치포인트', 지속가능성과 순환 경제 테마를

소개하는 '지속가능성 터치포인트' 까지 5개 테마별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모든 포럼 및 컨퍼런스 연사 및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내 program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drupa 전시회는 홈페이지 www.drupa.com에서 입장권 구매 후 참관 가능하다. 온라인 예매 시 최대 30%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시회 참가 및 참관 문의는 공식 한국대표부 라인메세로 연락하면 된다. (info@rmesse.co.kr, 02-798-4343)

스타벅스

종이백 유상화

판매액 지역사회 환원

스타벅스가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종이 쇼핑백과 다회용백을 유상 제공하기로 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오는 20일부터 '종이 쇼핑백'을 사이즈 관계없이 100원, '음료 제공용 다회용 백'은 500원에 유상 제공하는 새로운 쇼핑백 운영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스타벅스는 음료, 푸드, MD 등 구매한 물품을 외부로 가지고 나가는 고객의 편의를 고려해 종이 쇼핑백이나 다회용 백을 무료로 제공해왔다.

이번 새로운 정책은 해마다 늘고 있는 종이 쇼핑백과 다회용 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스타벅스는 올 한 해 사용량을 전년 대비 50% 감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무게로 환산하면 약 320톤의 사용량이 감축되는 것으로, 물 1,343만 리터를 절약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526톤을 줄인 것과 맞먹는 효과다.

스타벅스는 앞으로 종이 쇼핑백과 다회용 백 판매 금액의 일부를 환경 기금으로 조성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기부한다는 방침이다.

종이 쇼핑백이나 다회용 백 구매를 희망하는 고객은 주문 시 해당 품목이 포함된 금액을 결제하면 되며, 종이 쇼핑백이나 다회용 백만 별도로 구매하거나 사용한 쇼핑백의 교환 및 환불은 제한된다. 종이 쇼핑백은 최대한 여러 번 사용될 수 있도록 재질의 내구성을 한층 강화했다.

그동안 스타벅스는 환경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고객의 일상 속 친환경 소비 문화 정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다.

지난 2011년 매장 내 취식 고객에게 다회용 컵을 제공하는 '일회용 컵 없는 매장 캠페인'을 시작으로 2018년 환경부, 자원순환사회연대와 종이 빨대를 제공하는 자율 협약을 맺는 한편, 같은 해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리드도 도입했다.

개인 컵 이용 고객에게 제공하는 혜택도 꾸준히 늘리고 있다. 스타벅스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개인 컵 음료 할인 혜택을 기존 300원에서 400원으로 대폭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스타벅스에서 개인 컵 이용 건수는 전년 대비 16.2%나 늘어난 2940만 건으로 역대 최다를 경신했다. 2023년 한 해 고객에게 제공된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38 억원에 이른다.

깨끗한 나라

제지연합회 주최 '제39회 우수제지인상' 수상

제지혁신활동에 기여

깨끗한나라가 한국제지연합회 주관 '제39회 우수제지인상'에 선정됐다. 깨끗한나라는 지난달 20일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열린 '제39회 우수제지인상' 시상식에서 청주공장 공무팀 곽종신 반장, HL사업부 화장지생산팀 이창희 팀장이 수상했다고 밝혔다.

우수제지인상은 국내 제지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제지혁신 활동에 기여한 제지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수상자인 곽종신 반장은 지난 1994년 입사해 약 29년간 공무팀에 근무하면서 설비 트러블 예방 및 작업 표준화를 통한 공정안정화에 앞장서는 등 제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적극적인 업무수행능력을 통해 구성원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고 안전의식 강화에 큰 역할을 했다.

이창희 팀장은 지난 2010년 입사해 13년간 화장지 초지 및 가공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폐품ロス(Loss) 절감, 제조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제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RTD, MES 등 업무 효율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정 개선으로 화장지생산팀의 기틀을 다지는데 기여했다.

깨끗한나라 관계자는 "회사 발전을 넘어 제지산업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수상자 두 분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깨끗한나라는 전 임직원이 힘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제지업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BS 나노입자 공동 연구단

페플라스틱 98% 수소 전환 성공

'페플라스틱을 수소로' 새 활용...세계 최고 효율 촉매 개발

국내 연구진이 버려지는 페플라스틱으로 청정 에너지인 수소를 생산하는 촉매를 개발했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은 나노입자 연구단 현택환 단장(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좌교수)이 이병훈 고려대

KU-KIST 융합대학원 조교수, 김민호 경희대 교수팀과 함께 아주 적은 양으로도 페플라ستيك에서 많은 수소를 생산하는 세계 최고 효율의 촉매를 개발했다고 지난달 6일 밝혔다.

백금(Pt)을 비롯한 귀금속계 촉매는 좋은 성능을 갖고 있지만 비싼 가격으로 산업적 규모에서는 경제성이 떨어진다. 반응 조건에 따라 금속 원자들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해져 온전히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에는 원자 하나하나가 개별 분산한 원자 분산 촉매가 주목받는다. 모든 백금 원자가 반응하면 활용도가 극대화된다. 다시 말해, 적은 양의 귀금속만 사용해 가격은 저렴해지면서 성능은 좋아진다. 원자 분산 촉매는 지지체 표면에 금속 원자를 고정된 형태다. 기존에는 고온·고압 조건이나 복잡한 합성과정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연구진은 별도의 전기나 열에너지 없이 태양 빛만을 이용해 상온에서 원자 분산 촉매를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이산화타이타늄(TiO_2)처럼 쉽게 구할 수 있는 상용 산화물을 지지체로 활용했다. 빛을 이용해 수소를 발생시키는 반응에서 새롭게 합성한 원자 분산 백금-이산화타이타늄 촉매 성능을 평가한 결과, 1g의 촉매를 사용했을 때 시간당 3.7ℓ의 수소를 만드는 세계 최고 효율을 보였다. 이 촉매를 페플라ستيك 광(光) 개질 반응에 적용했더니, 98%의 플라스틱이 수소로 전환됐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기존 성능이 가장 우수하다고 보고된 촉매보다 10배 이상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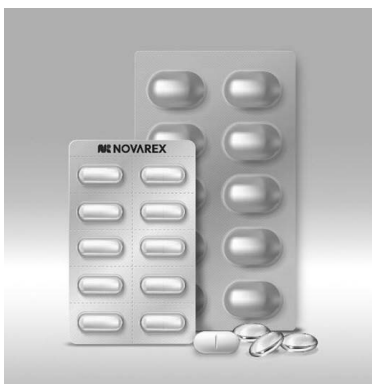
현택환 단장은 “사용하는 지지체와 금속 촉매 종류에 따라 광촉매, 열 촉매 등으로 다양하게 합성할 수 있어 화학산업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이날 오전 1시 국제학술지 ‘네이처 머티리얼스’ 온라인에 실렸다.

노바렉스

기능성 알루미늄 포장 도입

건기식 품질 고도화



▲ PTP+알루미늄 포장에 적용된 제품 이미지

노바렉스는 빛과 습기에 민감한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알루미늄’ (Alu-Alu) 포장을 도입했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알루미늄 포장은 앞·뒷면을 모두 알루미늄 호일로 입혀 수분 차단성이 우수하고, 밀봉성 및 내용물 보존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건강기능식품의 포장 기술은 제품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제품에 따라 적게는 한달에서 서너 달까지 복용하게 되는데, 그동안 성분이 변형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품질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에는 스틱포, PTP, 병, 멀티팩, 파우치, 앰플 등 제품 유형과 소비자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포장 형태

가 존재한다.

그중 외부 오염 차단성이 우수하고 보관이 편리한 캡슐 및 정제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PTP’ (Press Through Pack) 포장이다. PTP 포장은 플라스틱 시트를 열로 성형해 제품이 들어가는 공간을 만들고, 그 위를 얇은 알루미늄으로 감싸 밀봉해 보관이 편리하고 외부 오염 차단성이 우수하다. 알루미늄은 이런 PTP의 특징에 장점을 하나 더한 포장재다. PTP의 경우 한 면만 알루미늄 포장이라면, 알루미늄은 앞·뒷면을 모두 알루미늄 호일로 입혀 수분차단성과 내구성이 우수하다. 밀봉성이 뛰어나 제품의 변질을 막고, 신선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유산균과 같이 빛, 열, 수분(습기)에 취약한 건강기능식품 포장에 최적화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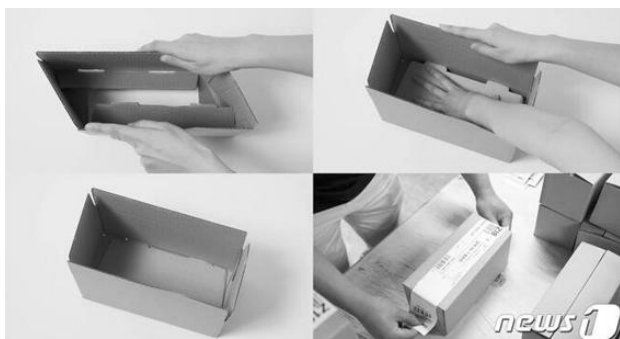
노바렉스가 제조한 제품 중 알루미늄 포장을 적용한 제품은 △지큐랩 콜레스테롤 솔루션 데일리 △지큐랩 데일리 팜 △뉴트리코어 포스트바이오틱스 유산균 △NUTRICORE x Dr 맥스 비오틴 12000 등이 있다.

노바렉스 관계자는 “이번 알루미늄 포장 도입은 시장에 여러 선택지를 제공해 다양해진 소비자의 니즈와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함”이라며 “회사는 멀티팩 포장 최초 도입,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운영 대상으로의 선정 등 포장 영역에서도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

‘테이프리스 포장 솔루션’ 월드스타 패키징 어워드 수상

플라스틱 테이프 없앤 ‘테이프형 송장’ ‘원터치박스’ 기술 접목



▲ 월드스타 패키징 어워드를 수상한 CJ대한통운의 테이프리스 택배포장 솔루션

CJ대한통운은 플라스틱 테이프를 쓰지 않고 포장하는 택배 포장기술인 ‘테이프리스 택배 포장 솔루션’으로 세계포장기구(WPO·World Packaging Organization) 주최 ‘2024 월드스타 패키징 어워드-이커머스 부문 본상’을 받았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월드스타 패키징 어워드는 매년 혁신적이고 우수한 패키징 기술·제품을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올해 전세계 41개국(435개 기업)이

참여했다. 국내에선 CJ대한통운을 포함해 10개 기업이 수상했다.

테이프리스 택배포장 솔루션은 ‘원터치 박스’와 ‘테이프형 송장’으로 구성된 솔루션으로 작업 과정

에서 플라스틱 소재 테이프를 제거했다.

테이프형 송장은 택배 운송장으로 박스 상부 테이핑과 운송장 부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테이프형 송장 활용시 포장 작업 시간을 약 10% 줄일 수 있다. 소비자는 박스를 개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운송장을 제거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 측면서도 유용하다.

원터치 박스는 누구나 쉽고 빠르게 조립할 수 있어 작업 효율성을 끌어올려 준다. 미숙련자도 평균 3~4초 만에 조립할 수 있다. 플라스틱 필름과 접착제로 만들어진 테이프는 분리배출 시 제거하기 번거로워 종이박스 재활용률을 떨어뜨리는 대표 원인으로 꼽힌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테이프리스 택배 포장 솔루션을 활용하면 플라스틱 테이프 사용량을 감축할 수 있다”며 “종이 소재 기반 운송장으로 일반 테이프 대비 박스 재활용률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은 △Reduce(플라스틱 사용량 감축) △Recycle(박스 재활용률 제고) △Reuse(박스 재사용 활성화) 등 3R 기반 패키징 기술 혁신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김경훈 CJ대한통운 TES물류기술연구소 소장은 “연간 택배물량이 40억 상자를 넘어서는 등 생활 필수 인프라로 자리잡으면서 친환경 패키징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요건”이라며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은 수상을 계기로 패키징 기술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오토닉스

오토메이션월드 2024 참가

하이엔드 제품과 기술 선보여



▲ Automation World 2023 오토닉스 부스 전경

오토닉스가 3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3일 동안, 서울 삼성동 COEX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산업 자동화 전문 전시회인 Automation World 2024에 참가한다.

오토닉스는 국내를 대표하는 산업 자동화 전문 기업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첫 회부터 34년간 연속으로 Automation World에 참가하는 기업이다. 해당 전시회에서 오토닉

스는 산업 현장의 파트너이자 자동화 솔루션의 제공자로서 자동차, 포장, 반도체, 물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하이엔드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토닉스 부스는 ▲SCADA ▲Safety ▲DIN-Rail 제품군 존 등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제품 및 기술을 선보인다.

▲SCADA 존에서는 자동차 공정, 빌딩 제어, 수처리 정수장 같은 산업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는 응용 작화를 선보임과 동시에 실시간 모니터링/제어/수집 등 데이터 통합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Safety 존에서는 라이트 커튼, 컨트롤러, 도어 스위치, 스위치 등 세이프티 제품군 데모키트 위주의 전시와 펜스 양면 구조물을 통해 오토닉스의 안전 제품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Safety 사인 조명과 천정 조명으로 포토존을 마련하여 고객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DIN-Rail 제품군 존에서는 온도조절기, SMPS, SSR, 타이머, 리모트 I/O, 세이프티 컨트롤러, I/O 단자대 등 DIN-Rail 취부가 가능한 다양한 제품군을 보여줄 계획이다.

그 외에도 ▲LiDAR ▲변위센서 ▲머신비전 ▲초음파 센서 ▲포토마이크로 센서 ▲근접센서 ▲전력조정기 ▲클로즈루프 스텝핑 등 제품의 실제 구동 모습은 물론,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편, 오토닉스 부스에서는 SNS(Linkedin) 채널을 팔로우하고 숫자 퀴즈에 참여한 고객에게 수제 맥주를 제공한다. 수제 맥주는 부스에서 취식이 가능해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 축제같은 전시회를 느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드라이버 세트, 디지털 타이머, 암막 우산, 타월 등 다양한 기념품도 증정한다.

LG화학-CJ제일제당

친환경 바이오 나일론 합작사업 추진

섬유 · 자동차 · 전자기기 등에 사용

LG화학이 CJ제일제당과 손잡고 친환경 바이오 나일론 사업화에 나선다. LG화학은 지난 14일 CJ제일제당과 바이오 원료 기반 친환경 나일론 생산 및 판매 합작사 설립을 위한 주요 조건 합의서(HOA)를 체결했다고 지난달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두 회사는 국내 기업 최초로 바이오 나일론의 원료부터 제품까지 생산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해 안정적인 사업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CJ제일제당이 미생물 정밀 발효 기술 및 공동 개발 기술로 바이오 원료를 생산하고, LG화학의 기술로 이를 중합해 바이오 나일론을 생산하고 판매한다. 바이오 나일론은 석유계 나일론처럼 내열성과 내구성이 높아 섬유, 자동차, 전자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인다. 특히 옥수수 사탕수수 등 바이오 원료로 생산되어 탄소 저감 효과가 크다. 글로벌 친환경 정책 등에 힘입어 바이오 나일론의 세계 시장 수요는 작년 40만톤(t)에서 2028년 140만t 규모로 연평균 29% 성장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한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이번 협약은 저탄소 사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각 분야의 대표 기

업이 손잡고 협력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LG화학은 친환경, 저탄소 원료로의 플라스틱 사업을 지속 추진해 탄소 감축 분야에서 선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비맥주

카스라이트 패키지 리뉴얼

Z세대 소비자 이목 사로잡아 저변확대

오비맥주가 ‘카스 라이트’ 패키지를 리뉴얼해 출시한다고 밝혔다. 오비맥주는 이번 리뉴얼을 통해 카스 라이트의 기존 소비자층과 더불어 ‘헬시 플레저’ 열풍을 주도하는 Z세대 소비자의 이목을 사로잡아 라이트 맥주 시장의 저변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새 디자인은 ‘제로 슈거’ ‘저칼로리’ ‘낮은 도수’ 등 카스 라이트의 소구 포인트를 디자인적으로 더 직관적으로 깔끔하게 표현했다. ‘제로 슈거’와 ‘카스 프레시 대비 33% 낮은 칼로리’ 등의 주요 정보가 패키지에 보이도록 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미국 수출시 친환경 마케팅 주의

위반시 벌금 부과

미국에서 ‘그린워싱’ (가짜 친환경 마케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수출 기업도 친환경 마케팅을 주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난 10일 발간한 ‘우리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미국 그린 마케팅에 숨겨진 위험’ 보고서에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올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환경 마케팅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인 ‘그린 가이드’ (Green Guide)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TC는 이를 통해 환경이익에 관한 표시, 재활용에 대한 표시, 탄소 상쇄 및 인증 등과 관련한 규제 수위를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미국 수출 기업이 무리하게 친환경 마케팅을 폈다가는 오히려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례로 미국의 대형 유통사인 콜스와 월마트가 FTC에 의해 그린워싱 혐의로 기소돼 총 550만달러(약 73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사건을 소개했다. 콜스와 월마트는 베개, 시트, 목욕 수건 등 24개 제품을 ‘대나무로 만든 친환경 제품’이라고 선전했으나, 이들 제품이 합성섬유인 레이온(인견)으로 만든 것으로 드러나 환경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진출하는 국내 수출기업에 주의를 당부했다.

캘리포니아주가 올해 1월 ‘자발적 탄소 시장공개법’을 시행하면서 탄소중립, 순제로(Net-Zero) 배출, 배출 절감 등 탄소 감축 관련 내용을 주장하며 친환경 마케팅을 펴는 기업은 이를 증명하는 상세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 법에 따라 제품의 친환경 관련 정보는 매년 한 차례 이상 업데이트해야 한다. 법 위반 시 하루 2천500달러(약 3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벌금 총액 상한은 50만달러(약 6억7천만원)에

달한다. 코트라 미국 실리콘밸리 무역관 관계자는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정확하고 입증된 사실을 바탕으로 친환경 마케팅을 펴야 하며, 수시로 변하는 법과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발 빠른 마케팅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깨끗한 나라

친환경 신사업

폐 스티로폼 재활용

지기업 깨끗한나라가 지속 가능한 스티로폼 원료 상용화에 성공하며 신소재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깨끗한나라는 스티로폼(EPS·발포 폴리스티렌)을 100% 재활용한 ‘EPS 마이크로펠릿(Micro Pellet)’ 기술을 협력업체와 함께 개발해 지난월부터 EPS 마이크로펠릿 양산에 본격 돌입했다고 지난달 13일 밝혔다.

깨끗한나라에 따르면 EPS 마이크로펠릿은 사용한 스티로폼을 0.8mm도 안 되는 작은 알갱이 형태의 펠릿(Pellet·압출해 만들어진 작은 조각)으로 생산해 신재(Virgin Plastic)와 혼합하면 스티로폼으로 재생산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다.

스티로폼은 가공이 쉽고 가벼워 실생활에서 흔히 포장용 완충재로 사용된다. 하지만 폐기할 때 자연분해가 어렵고, 사용 후 버려진 스티로폼들은 폐기물로 쌓여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환경오염 주범으로 지목받는다.

깨끗한나라는 폐스티로폼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에 석유 기반의 새 스티로폼 원료 투입량을

줄여 탄소 저감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을 구현했다. EPS 마이크로펠릿을 사용할 경우 기존 스티로폼 신재 1kg당 생산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도 72% 이상 감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깨끗한나라는 온실가스 순배출을 제로화한다는 탄소중립(Net Zero) 글로벌 정책에도 동참하게 됐다. EPS 마이크로펠릿은 재활용이지만 기존 스티로폼과 동일하게 전자제품, 차량부속품을 비롯한 중량물의 완충재로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친환경 소재보다도 가볍고 우수한 완충 성능으로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받는다. 특히 친환경 EPS 마이크로펠릿을 50% 투입해 생산된 스티로폼은 2030년부터 포장재의 재활용 원료 비율을 3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포장재 규제를 충족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조두영 깨끗한나라 신사업팀장은 “깨끗한나라의 기술 혁신으로 재활용임에도 새 제품과 동일한 성능의 친환경 소재 EPS 마이크로펠릿은 환경오염 해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업의 환경 규제 대응력도 한층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업계

택배포장 대혼란

가이드라인 없이 규제

오는 4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택배 포장 규제’ 탓에 유통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규제 적용을 두 달 남짓 앞두고 환경부가 기본 가이드라인조차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예정됐던 가이드라인 발표를 두 달 가까이 아무 해명도 없이 미루고 있다. 해당 규제는 '과대 포장'을 막기 위해 일회용 택배 포장 용기 안의 빈 공간과 포장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두 달 안에 이에 맞춰 택배 포장 방식을 바꿔야 하는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대형 택배사와 쿠팡 쉐리 등 e커머스, 식품·화장품사, 소상공인 등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각에선 환경부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였다가 결국 철회한 '종이빨대 사태'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환경부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일명 일회용 택배 포장 규제를 발표한 건 2022년 4월이다. 작은 용량의 제품 하나를 시켜도 큰 상자에 포장하는 과대 포장 문제가 불거지면서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택배 포장 용적의 빈 공간을 50% 이하로 규제하고, 제품 자체 포장을 제외한 택배 포장 횟수를 한 번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제품을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발송하는 모든 택배가 대상이다. 가로·세로·높이 합이 50cm 이하인 택배는 예외다. 단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 시행을 2년간 유예하고, 지난해 12월까지 제품 크기·특성별로 세부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법 시행이 두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환경부는 아직까지 택배 포장 규제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기업들에 전달하지 않았다. 특히 밀키트처럼 냉장·냉동이 필요한 가공식품 배송 비중이 높은 e커머스업계의 우려가 크다.

이들 식품은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아이스팩

등 보랭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택배 포장 규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보랭재는 '빈 공간'에 해당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제품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재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택배 공간의 40%를 제품으로, 30%를 보랭재나 완충재로 채우면 위법이다.

포장 용적이나 횟수를 위반해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계는 2년간 '제품 보호에 필수적인 아이스팩이나 완충재 등은 빈 공간에 포함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지만 환경부로부터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다. 한 e커머스업계 관계자는 "여름철엔 식품이 쉽게 상해 제품 용량 대비 보랭재를 많이 넣고 있는데 법규를 위반할 가능성이 커 딜레마에 빠졌다"고 토로했다.

각 제품의 크기에 맞는 택배 상자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것도 업체로서 부담이다. 특히 준비비가 미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법 시행 후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 지적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법을 준수하려면 현재보다 3~4배 많은 규격의 상자가 필요하다"며 "구입 비용뿐 아니라 상자 보관, 재고 관리 시스템 변경까지 감안하면 두 달 안에 준비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과대포장을 줄여야 하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제품별로 다른 세부적인 지침과 추가 유예기간 등 준비 기간을 줘야 한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한 대형 식품사 관계자는 "외부 충격에 약한 제품은 완충재를 충분히 넣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적률과 포장 횟수를 넘길 수 있다"며 "제품별로 용적률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